

# CJ, 신의도에 천일염공장 완공

어민들과 공동 설립 ... 연간 2만t까지 생산 세계 최대 규모

## CJ측 “5년내 매출 240억 ... 안정적 생산라인 확보”

전남 신의도 어민과 CJ제일제당이 공동으로 설립한 신의도 천일염공장은 10일 완공됐다.

신안군과 CJ제일제당은 이날 밖우랑 신안군수와 김진수 CJ제일제당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서 천일염 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2만4천211㎡의 부지에 세워진 이 공장은 천일염 완제품을 연간 최대 2만t까지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천일염 생산시설이다. 기존의 국내 최대 천일염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1만t이고, 세계적인 명품 소금 브랜드인 프랑스 ‘케르망드’의 연 생산량은 1만5천t 수준이다.

자연 갯벌 염전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갯벌 천일염은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와 한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의도 천일염 공장이 사실상 세계 최대 규모가 된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이 공장은 CJ제일제당의 천일염 신제품 7종을 생산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천일염 브랜드로 기존의 ‘오천년의 신비’ 4종을 포함해 총 11종을 보유하게 됐다.

CJ 측은 신의도 천일염 공장의 준공으로 안정적인 제품 생산 라인을 확보함에 따라 ‘오천년의 신비’ 매출이 5년 안에 24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 대표는 준공식 행사에서 “최근 천일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제품들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신의도 천일염 주식회사는 지난 1

월 신의도에 염전을 소유한 어민 83명(지분 48%)과 CJ제일제당(지분 52%)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다. 천일염 공장 지분을 가진 어민들은 투

자자이면서 천일염의 원염(원료소금)을 납품하는 공급자 역할도 겸하게 된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농식품부, 모든 소금 품질검사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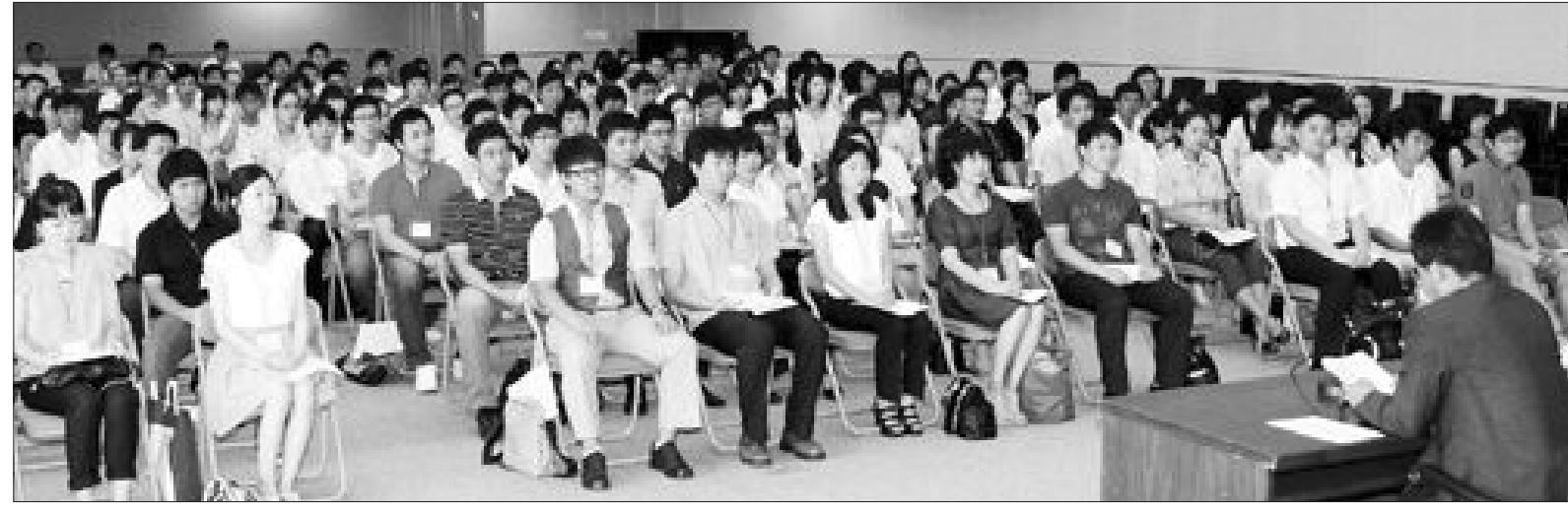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은 오는 11일부터 국내산 천일염과 비(非)식용으로 수입한 소금은 반드시 품질검사를 받아야 출하해 판매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검사원은 “품질검사 제도는 수입 염이 국산으로 둔갑되거나 공업용염이 식용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외국산 소금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내 천일염 등 소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 됐다”고 밝혔다.

품질검사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는 천일염, 정제염, 재제염, 가공염, 부산물염과 비식용으로 수입되는 천일염, 암염 등이다.

검사원은 “염화나트륨, 수분 불용 분 등 5개 일반성분과 수은, 납, 카드뮴, 비소 및 고령방지제 등 6개 유해 성분 등 모두 11개 성분에 대해 정밀 검사를 벌이게 된다”면서 “검사에 합격한 소금에는 ‘염검사필’ 날인표시를 하고 검사필증이 교부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도정 배우는 새내기 공무원

전남도는 10일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2010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해 시·군에 배치되는 신규임용후보자를 170명을 대상으로 도정시책을 소개하고 업무추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전남도제공)

## 지자체장 ‘판공비’ 잘못쓰면 5배 깎인다

###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흔히 ‘판공비’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적발되면 이듬해 업무추진비가 적발된 금액의 최고 5배까지 깎이게 된다. 또 지자체가 민간의 행사나 복지사업 등에 쓰는 ‘민간이전경비’의 상한액이 정해지고, 학교 지원금이나 소규모 축제성 행사 관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령인 ‘2011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받는 업무추진비가 유용되는 사례를 막고자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을 때 별도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행안부나 감사원의 감사, 법원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액의 범위 내에서 이듬해 보통교부세가 산감된다.

/연합뉴스

## 車 한대당 세금 185만원

### 작년 32조 거둬 ... 국가 세수의 15.8%

정부가 지난해 내수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를 시행했지만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자동차 관련 세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10일 지난 해 자동차 취득과 보유, 운행에 부과된 세금 총액이 32조1668억원으로, 전년도(31조1550억원)에 비해 3.3% (1조118억원)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

다. 자동차로 인해 거둬들인 세수는 국가 총 세수의 15.8%를 차지했으며 1년간 차량 1대당 부과된 세금은 185만7000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 증가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으로 개별소비세는 감소했지만 차량 판매가 17.5%나 늘어나면서 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 등 취득단계 세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 최고 상권 건물 매매

### 대단위 APT 단지 인접 동림지구 최신식 건물

-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 대지 632.9㎡, 건물 2,289.09㎡
- 가격 상당후 결정



월산동 외곽도로변  
지상 3층 건물매매  
• 대지 374.9㎡  
• 건물 299㎡

TEL: 011) 607-5629

##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스피치, 연설, 리더십, 설득력 향상과정

1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명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2 모집인원: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직장인, 일반인, 주부, 기업체장 및 학생,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

3 강의일정 및 시간

- 아간매주 금요일 19:00~21:00

4 교육기간: 2010년 9월 10일(금) ~ 12월 17일(금)(15주)

※ 교육요령: 실습위주교육(실습 70%, 이론 30%)

5 교육내용: 대화 및 연설기법, 발표역, 남북에서 두려움없이 말하기, 각종 행사 사회 진행, 노동, 각종 행사, 학교, 각종 행사, 노조위원장 출마연설문 작성 및지도

6 원서교부 및 등록기간

- 등록기간: 2010년 7월 28일(수) ~ 8월 27일(금)

- 등록시간: 월 ~ 금요일 10시 ~ 오후 5시)

- 등록장소: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과(호심관 4층)

7 등록방법 및 강료: 200,000원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전화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광주대학교 134-107-1098430(은행: 광주광역시 대회원)

8 수료 후 특전: 수료증 수여(총장명의), 스피치지도사 자격증 수여, 각종 행사연설문 파견, 각 기업체, 학원 등에서 일정 및 연설문 작성(30년)

9 담당교수: 한상택

- 한국용법연설인증회 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유세위원장

- 한국 정치 연설 교수 - 전라남도지사 후보 유세본부장

- 대통령상 전국용법연설대회 및 전국스피치 기능경기대회 위원장

- 기초광역인원 양성기초대학, 국회 의원회관 연설지도 및 연설문 작성(30년)

- 시민법인 한국용법연설회 광주부회 회장

※ 저서: 말하기 교본, 스피치 출판 연설 리더십

■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 670-2167, 2168  
FAX: 062) 670-2475 HP: 010-5692-9998

## 대우조선 협력사 전격 압수수색

### 검찰 거액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1사가 납품 매출과 관련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고 10일 이 회사와 계약자, 임직원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달 2일자로 중간 간부급 인사를 단행한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수의 진용을 개편한 이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남 거제에 있는 이 회사와 계약사 G사·D사의 사무실, 임직원 자택 등 10여곳에 수사관 30여명

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업무일지와 수첩, 자금 담당부서의 일일보고서 등 10여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조선업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1사가 대우조선해양과 납품이나 시설공사 수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 ‘납품비리’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사 측이 2004~2008년 대우조선해양에서 지급받은 선수금 500여억원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남상태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 로비’에 썼다는 의혹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이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0월에는 하도급업체에서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거액의 뒷돈을 받아 쟁기 협력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2명을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 “F1대회 등 현안사업 초당적 협력하겠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 박지사에 밝혀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0일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만나 도정 현안인 관광숙박시설 투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완화와 포뮬러 원(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등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받았다.

박지사는 다음 달 10일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찾은 원총장을 접견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남해안의 섬, 갯벌 등을 연계한 숙박시설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히才行”PF 규제 때문에 투자유치를 해놓고도 사업 추진이 자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다”면서 “관광 분야는 별도의 PF대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당 차원서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여수세계박람회장 주변 고급 숙박시설 10여 개를 비롯해 도내 24개를 유치했지만, 기업의 PF대출이 어려워 여수 경도와 디오션호텔 등 2곳 이외 대부분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박지사는 F1에 대해 “올해 60

/

원희룡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

박지사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